

차량 개발에 일반인 참여… 강남에 ‘미래차 연구소’ 오픈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

“고객이 차량 UX 개발과정 참여
세계 첫 체계적·상시적 플랫폼”

1층 오픈랩 공간에서 모형 체험
2층에는 UX 연구 ‘몰입형 공간’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편리함을 넘어 감동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현대차·기아 피쳐전략실 김효린 상무)

현대자동차·기아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미래차 연구소를 오픈했다. 현대차·기아의 차량 연구원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이곳에서 차량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사용자 경험(UX) 연구 거점이다.

지난 1일 방문한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은 고객과 소통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차·기아 피쳐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여러 완성차 업체도 다양한 형태의 고객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적이



‘UX 인사이트’ 구역에서 참가자들이 UX 연구 콘텐츠를 체험하는 모습(왼쪽부터 시계방향).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 전경. 2층 ‘시뮬레이션 룸’에서 실제 주행 환경을 구현해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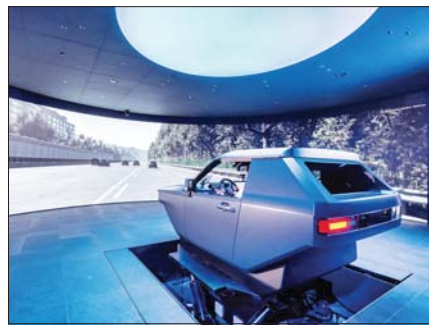
고 상시적인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UX 전시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할 수 있는 1층 ‘오픈랩’과 몰입형 UX 연구 공간인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구성된다.

1층은 오픈랩 공간으로 현대차·기아의 전반적인 UX 연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선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반적인 UX 연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UX 인사이트 구역은 도어, 시트, 무빙 콘솔 등 다양한 UX 콘셉트가 반영된 모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UX 콘셉트 구역에는 나무로 만든 스테디 벅(사용성 검증 등 목적의 실험용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차량 공간 구성, 시트 및 수납 기능, 이동 콘솔 등 다양한 UX 콘셉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VR 기기를 통해 차량에 적용된 UX를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UX 검증 구역에서는 검증 벅을 통해 주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가상 주행 환경이 전방 LED 월에 표시되며, 검증 벅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다.

SDV존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SDV존에는 플레오스 커넥트가 장착된 SDV 테스트베드 차량에 탑승해 다양한 기능을 조작해 볼 수 있다.

1층에서 방문객들의 체험 데이터를

구축했다면 2층의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연구원들과 사전 모집된 사용자들이 함께 UX 연구를 수행하는 몰입형 공간이다.

UX 캔버스는 연구원들과 고객이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곳으로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피쳐 개발 톨은 자율주행 UX, 고성능 차량 UX,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HMI) 등 분야별로 세분된 연구 공간을 통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빠르게 UX 콘셉트를 개발해 검증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가상 환경을 통해 차량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톨은 새롭게 개발한 UX 콘셉트가 주행 시 어떤 사용성을 보이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는 서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도 델리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가상 환경이 구현돼 있어 더욱 몰입감 있는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김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닌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3대 신형사 신용등급 일제 상향

NICE신평·한신평서 ‘A+등급’ 받아
영업실적·재무건전성 ‘긍정적’ 평가

현대로템이 투명경영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받았다.

현대로템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을 기존 A0에서 A+로 상향 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로템의 단기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NICE신평은 현대로템의 영업 실적과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현대로템이 2022년 K2 전차 폴란드 수출 이후 디펜스솔루션사업부의 매출 증가 추세 및 영업 흑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4조376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

중 디펜스솔루션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레이솔루션사업부는 올해 1분기 16조8611억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해 향후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신평은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사업부가 탄탄한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대로템 주요 사업부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신평은 현대로템이 고부가가

치 기술인 고속철도 차량 제작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철도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로템은 2023년 국내 3대 신용평가사와 한신평과 NICE신평, 한기평에서 신용등급 ‘A0’을 받았다. 이후 2년 만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외 신인도 상승 및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재무건전성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차입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177.5%를 기록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200% 미만으로 진입했다. 지난 1분기에는 부채비율이 144%를 기록했으며, 차입금과 현금성자산이 각각 2583억원, 764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설치 편의’ 삼성 시스템에어컨, 판매 40% ↑

구매자 2명중 1명 거주중인 집에 설치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구매한 2명 중 1명은 실제 거주 중인 집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사나 리모델링으로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아닌, 생활 중인 공간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비중이 올해 상반기 55%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수치는 2023년 24%, 2024년 48%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측은 ‘원데이 설치 서비스’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최대 8시간 만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완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장 단내립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인테리어핏



모델들이 거주 중인 집에서도 8시간 만에 설치가 가능한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키트’를 도입해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설치 제약이 줄어든 덕분에 판매도 크게 늘었다. 삼성스토어 기준, 올해 1~6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전자 ‘슈퍼맨’ 아트워크 10점 무료공개

삼성전자가 영화 ‘슈퍼맨’ 개봉을 앞두고 아트워크 10점을 무료로 공개하고, 대형 TV 마케팅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내달 31일까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슈퍼맨’ 아트워크 10점을 독점 무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 아트스토어는 삼성 TV를 통해 4K 화질로 세계 유명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구독형 콘텐츠 서

비스다.

이번 아트워크 공개는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하고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슈퍼맨’ 영화 개봉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작품은 새롭게 재편된 DC 유니버스 세계관의 첫 실사 장면으로, 영화 전문 사이트 IMDB가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영화’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영화는 오는 9일부터 전 세계 극장에서 순

차적으로 개봉한다.

삼성전자는 영화 공개와 함께 ‘슈퍼빅 TV’라는 슬로건 아래 슈퍼맨과 삼성 대형 TV를 접목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영상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TV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트워크 무료 공개와 함께 소비자에게 새로운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국내 9개 협력사와 상생협약 체결

국내 해상풍력의 선두주자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공급망 활성화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부산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국내 9개 협력사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력사는 산일전기, 삼일씨엔에스, 성현, 신라정밀, 엘에스케이, 우림피티에스, 은성오앤씨, 인텍전기전자, 휴먼컴퍼지트다.

이번 협약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확

대에 필수적인 공급망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 ▲ 기술 개발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 상생 기반의 안정적 공급망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행사 기간 중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 3MW, 5.5MW, 8MW, 10MW 한국형 해상풍력발전기 라인업 ▲ 국내 최초 및 최대 해상풍력 공급 실적 ▲ 창원 본사 내 해상풍력발전기 생산 시설 등을 소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